

<진청, 146-172>

竹所 栗里遺曲¹⁾

金光煜字晦而號竹所光海時登第官至刑曹判書提學

김광옥(金光煜) : 선조 13년(1580)에 형조참판(刑曹參判) 상준의 아들로 태어났다. 자는 회의(晦而), 호는 죽소(竹所)이며 본관은 안동이다.

1606년 진사시에 장원하고 같은 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서 출발하여 정언등을 역임하다가 광해군 3년(1611) 이언적, 이황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반대하는 정인홍을 탄핵하였다. 1613년에 계축옥사에 아버지와 함께 연루되어 국문을 받았으나 곧 풀려났으며 1617년 폐모 논의 때도 참가하지 않았다 하여 삭직되자 고양에 은거하였다.

인조반정 후 복관되어 군수, 목사 등을 역임하고 인조 11년(1633) 양서(兩西) 관향사(館餉使)로 국가 재정의 확보에 큰공을 세웠다. 1641년에 황해도 관찰사, 1644년 부승지검 세자빈객으로 세자를 모시고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도승지, 병조참판을 거쳐 효종 즉위 후 개성유수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문예에 뛰어나 시조 율리유곡(栗里遺曲) 17수와 단시조 5수가 전하며 문장에 뛰어나 <장릉지장(長陵誌狀)>을 편찬하였다.

저서로는 <죽소집(竹所集)>이 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一四六

陶淵明²⁾ 주근 後에 또 淵明이 나뉘말이 / 밤드울 네 일흔이 마조와 그들시고 / 도라와 守拙田園이야 귀오 내오 다르랴.

→도연명이 죽은 뒤에 또 연명이 났단 말인가? 밤마을의 옛 이름이 우연히 맞음이 같도다. 웅졸함을 지쳐 전원에 돌아와 사는 것이야 그 사람과 내가 다르게 있을소냐!

一四七

功名도 니젓노라 富貴도 니젓노라 / 世上 번우한 일 다 주어 니젓노라 / 내 몸을 내 무자 니즈닌 님이 아니 니즈랴.

→이 세상에 이름을 휘날리는 공명심도 잊었도다 세상에 마음이 시달려 괴로워하고 근심걱정 하는 것들까지도 모두 다 잊었노라. 내 몸까지도 내가 잊었으니 님이야 나를 아니 잊을 수가 있겠는가.

一四八

윗집의 슬픔을 꾸니 거른 보리 말뭇초다 / 즈는 것 마고 서여 쥐비저 피아네니 / 여러 날 주뻗든 입이니 두나쁘나 어이리.

1) 조선조(朝鮮組) 선조(宣祖) 때 김광옥이 지은 17수의 연시조(聯詩調). 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연의 풍취(風趣)에 도취하면서 저물어 가는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였다.

2) 중국 동진(東晉) 말기에서 송(宋)나라 초기의 시인. 연명(淵明)은 자(字).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남기고 벼슬길에서 물러나고 향리(고향)에서 농경 생활로 여생을 보냈다.

→뒷집에 술쌀을 꾸니 한말이 채 되지 않는구나. 진 것을 마구 찢어 손으로 주물러서 빗어
괴어내니 여러 날 주렸던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하리.

一四九

江山 閑雅호 風景 다주어 맛다이서 / 내 혼자 님자여 나뉘라셔 드물소니 / 님이야 슬췌
지 너긴들 눈화 볼 줄이시라.

→강산의 한가한 풍경을 다 주어 말아 나 혼자 임자니 누가 와서 다들소냐 님이야 심술궂게
여긴들 나뉘 볼 줄 있으랴.

一五〇

딜가마 초이 싣고 바위 아래 심들 기려 / 찢죽 들게 뿌고 저리지 이쓰어 내니 / 世上에
이 두 마시아 님이 알가 하노라.

→ 질가마를 깨끗이 씻어 바위 아래에서 샘물을 길어다가 팔죽을 달게 쏘고 절이 김치를 꺼
내어 먹으니 세상에 이 팔죽과 절이 김치 맛이야말로 님이 알까 두렵다.

▶ 이 시조는 율리유곡 17수 중의 한 수로 자세히 음미해보면, 참되 진리라는 것은 제 손으
로 땀흘려 만들어 먹는 속에 깃들여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쉽사리 느낄 수 있다. 고관대작
이 되어 하인들이 바치는 음식만 먹고 사는 것보다 자연에 안겨 자기의 양식을 자기의 힘과
땀으로 장만하여 먹는 자급자족의 생활 속에 깃들여 노는 기쁨이야말로 인간에게 주는 최대
의 행복이라는 점을 그가 손수 체험을 통해서 얻은 듯하다. 진리!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또한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고독한 존재도 아닌 것
이다. 이 시조는 그러한 진리의 생리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앞에 보여 주려는데 그 뜻이 있
는 듯하다. 지족가락, 그것은 이조시대 지식인들이 지닌 하나의 정신 세계였다. 이러한 신념
은 이론으로는 다 미치지 못할 생활의 경험과 세계관의 집적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一五一

어와 저 白鷗야 모습 슈고 하노손다 / 골솟으로 바자니며 고기 엮기 하노괴야 / 날곳지
군마음 업시 잠만 들며 엮더라.

→ 어와 저 백구야 무슨 수고하느냐. 갈숲으로 왔다갔다하며 고기 엮기를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一五二

茅簷 기나긴 해에 히을일 아조 업어 / 蒲團에 낮잠드려 夕陽에 지갓기니 / 門 밖귀 귀
우름하며 낙시 가자 하노니.

→ 모침 기나긴 해에 할 일이 아주 없어 포단에서 낮잠들어 석양이 지고 난 뒤 문 밖에 그
누가 함께 낚시 가자 하나니.

一五三

三公이 貴타 혼들 이 江山과 杖履소냐 / 扁舟에 둘을 싣고 낙대를 쫓더질제 / 이 물이
이 淸興 가지고 萬戶侯인들 부르랴.

→삼공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꿀소냐. 편주에 달을 싣고 낚시대를 흘던질 때 이 몸이 청흥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랴.

一五四

秋江 벌근 들에 一葉舟 혼자 저어 / 낙대를 썰쳐드니 자는 白鷗 다 놀란다 / 어딴서 一聲漁笛은 조자 흥을 돋느니.

→ 가을 강 밝은 달에 일엽주 혼자 저어 낚시대를 떨쳐 드니 잠든 백구 다 날아가는구나 어디서 일성어적(한 가닥 고기잡이의 피리소리)도 따라서 흥을 돋느니.

一五五

헛글고 싣근 文書 다 주어 푸리지고 / 匹馬秋風에 채를 쳐 도라오니 / 아므리 미인 새 노히다 이대도록 식원하랴.

→ 흠어져서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문서를 다 모아서 뿌리쳐 내던지고, 한 필의 말을 타고 채찍하여 추풍령을 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니 아무리 초롱에 갇힌 새가 풀려났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시원할 수가 있으랴.

一五六

대막대 너를 보니 有信하고 반갑괴야 / 나니 아히적에 너를 두고 돈니더이 / 이제란 窓 뒤에 섰다가 날 뒤세고 돈너라.

→대막대야 너를 보니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반갑기도 하다. 내가 어린 아이 적에는 너를 즐겨 타고 다녔느리라. 그 뒤에 내가 늙어들랑 창 뒤에 서 있다가 날, F 세우고 다녀다오.(내가 늙거든 지팡이가 되어 나를 뒤에 세우고 너는 앞서 가거라.)

一五七

世上 사람들이 다 쓰러 어리더라 / 죽음을 알면서 놀줄만 모로더라 / 우리는 그런줄 알 모로 長日醉로 노노라.

→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구나. 죽을 줄은 알면서 놀줄은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런줄 알므로 온종일 취하고 노노라.

一五八

사람이 죽근 後에 다시 사니 보왔는다 / 왔노라 하니 업고 도라와 놀모니 업다 / 우리는 구련줄 알모로 사라신제 노노라.

→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산 사람을 보았는가? 왔노라 한 사람도 없고 돌아와 날 묻 사람도 없다. 우리는 그런 줄 알므로 살아있을 때 노노라.

一五九

黃河水 뭇단 말가 聖人이 나셔도다 / 草野群賢이 다 니려 나닷말가 / 오즈버 江山風月을 놀음 주고 갈소니.

→ 황하수 맑다더니 성인이 나셔도다 초야군현이 다 일어났단 말인가 어와 강산풍월(江山風月)을 누구를 주고 가는가.

一六〇

**세버들 柯枝 것거 낙근 고기 썬여들고 / 酒家를 초즈려 斷橋로 건너가니 / 왼굴에 杏花
저 빠히니 갈 길 몰라 흐노라.**

→ 실버들 가지를 꺾어서 낚은 고기를 썬여 들고 술집을 찾아가려다. 마음먹고 끊어진 다리를 건너가니 그곳에는 살구꽃이 떨어져 휘날리고 있어, 술집으로 갈까나? 살구꽃 휘날리는 곳으로 갈까나? 어디로 갈지 모르겠도다.

一六一

**東風이 건듯 불어 積雪을 다노기니 / 四面靑山이 sP 얼굴 나모매라 / 귀밧의 히루근 서
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동녘 바람이 잠시 불어 쌓인 눈을 다 녹이니 사방의 푸른 산이 옛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그런데 귀밑에 해묵은 흰머리 털은 녹을 줄을 모르는구나.

一六二

**崔行首 썩달임 하세 趙同甲 긔달임 하세 / 돌썸 게썸 오려 點心 날 시기소 / 每日에 이
평성 글면 모습 시름이시라.**

→ 최행수여 썩썩여 썩달임 하세. 조동갑네야 꽃지저 꽃달임 하세나. 닭썸도 하고 게썸도 하세나. 울버쌀로 점심 짓는 일은 나를 시켜주시게나. 날마다 오늘 이 모양으로 지낸다면야 벼슬하는 일이 무엇이 부러우겠느냐.

작가론 또는 작품론의 기술은 이 지상 위에서 한 인간이 살고 난 후에 생기가 없는 자료(資料)에 생명감, 바로 그 자체를 불어넣어 주려 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의 저술(著述) 가운데서 가장 고아(高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광옥의 율리유곡(栗里遺曲)은 내용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귀거래(歸去來) - 一四六, 一四七, 一五五
- ② 망기심(忘機心) - 一五一, 一五三
- ③ 우유한적(優遊閑適) - 一四八, 一四九, 一五〇, 一五二, 一五四, 一六〇, 一六二
- ④ 탄로(嘆老) - 一五六, 一五七, 一五八, 一六一
- ⑤ 복사(復仕) - 一五九

귀거래(歸去來)는 이조(李朝) 양반의 생활구호(生活口號)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라와 守拙田園이야 괴오 내오 다르랴’에서 ‘아모리 밋인새 노히다 이대도록 시원하랴’로 귀래(歸來)의 득의(得意)를 노래하였고, 마침내 ‘내 몸을 내미자 니즈니 늙이 아니 니즈랴’에 이르러 완전한 현실이탈(現實離脫)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도 이조(李朝)의 사대부(士大夫)였기에 곧이어 현실을 잊지 못하고 ‘어와 저 白鷗야 무슨 수고 하느슨다.’, ‘굴습흐로 바자니며 고기 엇기 하느괴야’하고 외치며 현실의 풍파를 개탄하고 있다. 이것은 미연(未練)의 몸짓이다. 그는 억지로 ‘이몸이 淸興을 가지고 萬戶侯를 부르랴’하고 있으나, 내적으로 심적 갈등(葛藤)을 겪는다. 이와 같은 과정은 죽소(竹所)에 국한(局限)된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곧 잊는다. 망기심(忘機心)이다. 현실에 대한 집착(執着) 버리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은구(隱求)의 생활에 몰입하고자 하는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는 이내 가어웅(假漁翁)의 생활 ‘어디서 一聲漁笛은 조차 興을 돕느니’를 만끽(滿喫)하며 ‘그골에 杏花저 빠히니 갈길 몰라 흐노라’ 즉 술로써 전원생활(田園生活)을 탐닉(耽溺)하고 만다. 뒷집의

술쌀을 꾸기도 하고 팔죽을 달게 쭉고 저리 짐치를 꼬어 내기도 하며 ‘므슴 시름’도 없이 ‘崔行首 쑥다림 흐새’의 악빈(樂貧)의 경지(境地)로 치닫는다. ‘世上에 이 두 마시아 늬이 알가 흐노라’로 단호히 ‘늬화 불 줄’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적한 것도 환전한 경지에 이르기엔 현실의 유혹이 너무나 컸음을 보게 된다. 기약할 수 없는 현실로의 부귀(復歸)는 새삼 늙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도 한다. 즉, ‘두어라’, ‘노세’하는 길로 접어 들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게 된다. 술과 ‘노세’로 일관한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뒷집에 술밭을 꾸니 거촌 보리 말못츄다’는 탄로(嘆老)에 삼입할 수도 있겠으나 시상의 상이성(相以性)으로 보아 우유한적(優遊閑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았다. 아무튼 ‘長日醉로 놀고’, ‘사라실제 노노라’로 일종의 享樂과 악천(樂天)에 빠지는 듯하더니 ‘귀밑에 흰묵은 서리’를 상심(傷心)하면서 ‘窓 뒤헤 섰다가 날 뒤 세고 고든너라’의 탄로(嘆老)의 비감(悲感)에 젖어버리고 만다.

그러다가 결국은 ‘黃河水 뭍다더니 聖人이 나시도다’에 이르게 되는데, 이와 같은 탄성의 이유는 때마침 억울한 누명(陋名)을 벗게 되었고, 李宗 3년 정월에 내린 특명(特命) 즉 한성판윤(漢城判尹)에 제수(除授)된 때문이었다. ‘어즈버 江山風月을 누를 누고 니거니’ 이것은 부사(復仕)의 결심이며 그가 염원하던 현실제로의 부귀(復歸)인 동시에, 천석(泉石)에 대한 갈등이기도 하다.

이상 율리유곡(栗里遺曲)의 주제별 분석(分析)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가설에 지나지 못한다. 소결(小結)해 보면 율리유곡(栗里遺曲)은 조선조(朝鮮朝) 사림학과(士林學派)의 전형적인 작품군의 일각(一角)이며 시가와는 류(類)와 격(格)이 다른 인간미가 담긴 인생생활(人生生活)의 한 면모(面貌)를 보여 주고 있다. 퇴계(退溪)나 율곡(栗谷)의 심원(深遠)한 뜻이 표출된 것도 아니며 고산(孤山)의 시경(詩境)에서 보여주는 철저한 우유한적(優遊閑適)도 아니고, 송암(松岩)의 은거(隱居)의 매서움도 없다. 또한 매화(梅花)의 청빈(淸貧)과 국화(菊花)의 고고(孤高)도 없이 다만 송죽(松竹)의 죽(竹)이 비쳤을 뿐인데 그것도 표징(表徵)으로서의 죽(竹)이 아닌, 전편(全篇)에 흐르는 맥(脈)은 소박하고 정감어린 인간미일 뿐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율리유곡(栗里遺曲)이 연시조(連詩調)임을 감안할 때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상황의 추이가 비록 실증(實證)을 구할 수 없다고 해도 귀거래(歸去來)로부터 부사(復仕)에 이르는 주제별 분석(分析)은 가능하리라고 보았다.

洛西

張晩字好古號洛西 仁組朝官至二相兵判都元師玉城府院君

장만(張晩; 1566~1629)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인동(仁同). 호는 낙서(洛西). 군수 기정(麒禎)의 아들이다.

선조 22년(1589) 생원·진사 양사에 합격하고 1591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성균관, 승문원, 사간원, 사헌부 등에서 벼슬을 역임하고 1599년 봉산군수로 나갔다. 이때 서로(西路)에는 명나라 군사가 내왕하여 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수령들을 결박하고 욕을 보이는 등 행패가 심하였으나 그들을 잘 다스려 도리어 환심을 샀다. 이일이 조정에 알려지자 이를 포상하여 통정대부에 승계되고 동부승지에 승진되었으며, 이어 충청도 관찰사, 도승지, 대가산등을 역임했다. 이어 황후의 고명주청부사(誥命奏請副使), 세자책봉주청부사(世子冊封奏請副使)로 2차례에 걸쳐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후 함경도 관찰사 재임시에는 누르하치의 침입을 경고하여 그 방어책을 상소하였고, 광해군 2년(1610) 동지중추부사로 호지(胡地)의 산천지도를 그려 바쳤다.

이듬해 이항복의 건의로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나가 관서민(關西民)들이 편리하도록 군제(軍制)를 개혁하고 여연등 오래 폐지되었던 4군을 버려둘 수 없음을 역설하고 여진추장에게 공첩(公牒)을 전달하고 여진은 조선의 땅임을 인식시켜 여진사람을 철수시켰다.

그 뒤; 호조참판으로 조정에 들어와 당시 대북의 전횡을 힐책하다가 일시 삭직되었으나 곧 형조판서에 승진되었다.

그 뒤 호조참판으로 공사처리가 도리어 권간(權奸)들의 시기를 받아 벼슬을 포기할 각오로 시정(時政)을 극론하다가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자 병을 청탁하고 통진으로 물러갔다.

인조반정으로 새 왕이 등극하자 도원수에 임명되어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인조2년(1624)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여 그 전공으로 진무공신(振武功臣) 1등에 책록되고 옥성(玉成)부원군에 봉해지고 이어 우찬성에 임명되었다.

그 뒤 1627년 정묘호란 때 후금군을 막지 못한 죄로 관직을 삭탈당하고 부여에 유배되었으나 앞서 세운 공으로 용서받고 복관되었다. 문무를 겸비하고 지략이 뛰어나 인물이다. 통진의 향사(鄉詞)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낙서집(洛西集)>이 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一六三

風波에 놀란 沙工 벼 푸라 물을 사니 / 九折羊腸이 물도곤 어려워라 / 이 後란 비도 물도 말고 밭 갈기만 하리라.

→험상곶은 물결에 시달리다가 못한 뱃사공은 배를 팔아서 말을 사니 굵이굵이 뒤뜰어진 양의 창자처럼 말을 물고 다니기란 물보다 더욱 힘들고 어렵구나. 이후에는 뱃사공이 말 물고 간에 다 그만두고 밭 갈기(농사짓기)만 하련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地大本)이라. 뉘니뉘니해도 농사일이 제일이다.

▶ 이 시조는 권모술수(權謀術數)에 싸인 벼슬살이의 어려움을 풍자한 것으로 문관도 무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니 전원 생활이나 하겠다는 것이다. ‘배’는 문관(文官), ‘말’은 무관(武官), ‘풍파’는 세상살이의 어려움, ‘구절양장(九折羊腸)’은 험난한 인생살이를 비유한 말이다.

* 『해동소학부』의 한역

喫驚風波旱路歸 // 羊腸豹虎險於鯨 // 從今非馬非船業 // 紅杏村深暮雨耕

湖洲

蔡裕後字伯昌號湖洲 仁祖朝登第選湖堂典文衡官至吏曹判書

채유후(蔡裕後; 1599~1660)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평강(平康), 호는 호주(湖洲)이다. 진사 충연(忠衍)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문재(文才)에 뛰어나 17세에 생원이 되고 인조 원년(1623) 개시(改試) 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홍문관에 보임되고 사가독서를 거친 뒤 교리 지평사간을 역임했다. 1636년 병자호란 때는 집의로서 인조를 호종했다. 김류등의 강화천도 주장을 반대하고 주화론에 동조하였다가 구금되었고 1638년 석방되었다.

1641년 광해군이 제주도에서 사망하자 예조참의로서 호상(護喪)을 맡아보았으나 행상할 때 담군에게 백건(白巾)을 쓰게 하였다는 탄핵을 받아 병을 빙자하여 사임하였다.

중년 이후 술을 좋아하여 실수를 많이 하여 인조의 눈밖에 났으나, 1646년 이조참의로서 지제교가 되어 누구도 싫어하는 강빈폐출사사교문(姜嬪廢黜賜死敎文)을 지어 다시 등용되었다. 그러나 자신도 강빈 사건에 반대했던 터였으므로 집에 돌아와 크게 후회하였다고 한다.

1647년 대사성, 대사간이 되고 효종이 즉위한 뒤에도 대사간으로 있었으며 상작남상(賞爵

濫觴)을 경계하였으며, 1653년 대제학으로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여 가자(加資)되었다. 그 뒤 형조 예조의 판서와 대사헌을 역임하였으며 현종 즉위년(1659)에는 성절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술 때문에 여러차례 탄핵을 받아쓰나 문재(文才)에 뛰어나 중용되었다. 사후 실록편찬의 공으로 승록대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저서로 <호주집>이 있으며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一六四

**드나 쓰나 니濁酒 죠코 대테 메은 질병드리 더욱 죠희 / 어른자 박구기를 등지등등 띄
여두고 / 아히야 저리 집칠만정 업다 말고 내여라.**

→ 달거나 쓰거나 입쌀로 만든 술이 좋고, 참대로 레를 두른 질병들이 탁주를 담기에는 더욱 좋다. 얼씨구, 표주박으로 만든 술구기를 술통에 등등 띄어놓고 마시는데 아이야 절인 김치라도 좋으니 안주 없다 하지 말고 내어 오너라.

▶ 우리의 선민들은 신화시대로부터 술을 즐겨 왔었다. 그때는 술을 권모술수의 방편으로 이용하더니, 차차 중국 문학의 영향을 입어 취흥을 중시하고, 망아의 선약으로 즐기기에 이르렀다. 술마시기는 분위기를 완성하는 데에는 달과 꽃과 벗과 풍류가 따랐지마는 과음은 삼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주망으로 탈선하기도 했었다. 우리 선민들이 즐겨서 쓰는 관용구에, “세사는 금삼척이요, 생애는 주일배라”는 말이 있다. 이 글 속에 나오는 흥취가 바로 이런 경지라고 하겠다. 이 작품은 우선 토속적이고도 소박한 소재들에, 술 마시는 여유와 호방이 좋다. 진짜 술꾼은 청탁이 없고 안주를 탓하지 않는 법이니까 말이다. 또한 이 작품에서 술을 찬양하는 퇴폐적인 태도나 자포자기하는 무기력한 향락주의를 느끼지 않아서 좋다. 오로지 달관한 철인의 사색과 감각이 구체적인 이미 저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슴을 철근 망치로 치는 듯 박진해 오는 것을 느낄 뿐이다.

陽坡

鄭太和字圃春號陽坡 仁組朝登第官至嶺相諡忠翼

정태화(鄭太和 ; 1602~1673) : 조선후기의 문신. 본관은 동래. 호는 양파(陽坡). 영의정 광필의 5대손으로 형조판서 광성의 아들이다. 1628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정자로 벼슬을 시작하여 1637년 세자시강원의 보덕으로 소현세자를 따라 심양에 가기까지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 성균관등에서 당하관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역임하였다. 사간으로 있던 1636년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된 원수부의 조사관에 임명되어 도원수 김자점 휘하에서 군무에 힘쓰다가 병자호란을 맞아 황해도에서 패잔병을 모아 항전하는 무용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듬해 비변사가 유장(儒將)으로 4명을 천거하는 가운데 한사람으로 뽑힌 것도 이 까닭이다.

이후 1649년 48세의 나이로 우의정에 오르기까지 6조의 판서와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당시 정치는 소현세자의 돌연한 죽음과 그 후 승계 문제로 신하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결과 소현세자 부인 강씨가 사사(賜死)되고 그 아들들이 제주에 유배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중진 관료들의 처신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럼에도 그가 각조와 사헌부의 장관을 되풀이 역임할 수 있었던 것은 성품이 온화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했던 까닭이다. 뒷날 어느 사관(史官)이 “조정의 의논이 자주 번복되어 여러 차례 위기를 맞았으나 그의 형편은 바뀌지 않았

으니 세상에서는 벼슬살이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그를 으뜸으로 친다”고 평했다.

우의정으로 오른 직후 효종이 등극하자 사은사로 연경에 다녀왔고 효종 2년(1651) 영의정이 되어 그가 병으로 은퇴할 때까지 5차례나 영의정을 지내면서 효종과 현종을 보필하였다.

북벌정책과 예송(禮訟) 문제로 신료들의 반목이 격화되던 시기에서 당색을 기피하였고, 형제들과 친족들이 효직에 많이 있어 “이나라를 정가(鄭哥)가 모두 움직인다”는 야유와 “재주가 뛰어나고 임기응변에 능숙하여 나라 일은 적극 담당하여 하지 않고 처신만을 잘한다”는 비평을 듣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시기의 예송에서 일어나기 쉬웠던 선비들의 희생을 예방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특히 그와 그의 형제들은 이 무렵 청나라와의 어려운 관계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과의 곤란한 경우를 당할 때마다 그의 형제들에게 해결의 책무가 주어졌다. 1662년 진하겸 진주사(進賀兼 陳奏使)로 연경에 다녀온 것도 이런 까닭이다.

72세로 그가 죽으니 현종을 3년 동안 녹(祿)과 제수를 내리도록 특명했으며, 그 뒤 현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저서로는 시·문을 모아 엮은 <양파유고> 2권 2책과 일기책 <양파연기> 2권 2책이 있으며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一六五

술을 취케 먹고 두렛이 안자시니 / 億萬 시름이 가노라 下直온다 / 아이야 蠱 그득 부어라 시름 錢送하리라.

→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여럿이 등글게 앉아 있으니 억만 가지의 근심이 다 하직을 고하는구나. 아이야 내 잔에 술을 가득 부어라. 떠나가는 근심 걱정을 전송하리라.

東溟

鄭斗卿字君平號東溟 仁組朝登魁科官至禮曹衆判書提學文章奇拔

정두경(鄭斗卿 ; 1597~1673) : 조선후기의 문인 학자로 본관은 온양 호는 동명(東溟)이다. 이항복의 문인으로 조부 지승 증조부 담, 종증조부 염작은 모두 시인으로 이름이 높았다.

14세때 별시(別試) 초선(初選)에 합격하여 문명을 떨쳐 인조 4년(1626) 문학으로 이름 있는 중국의 사신이 왔을 때 그는 벼슬 없는 선비로서 부름을 받아 김류등과 함께 중국 사신을 접대하였다. 평소 장유는 그의 시를 이백가 두보에 견줄 만하다고 칭찬해 마지않았다.

1629년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정언등을 역임하였다. 이즈음 북방의 청나라가 강성하여 지자 <완급론(緩急論)>을 지어 군비(軍備)의 급함을 강조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고 <법편(法篇)>, <징편(懲篇)>등 2편의 풍자시를 지었다. 효종이 즉위하자 임금이 하여야 할 도리를 27편의 풍자시로 지어 올려 임금으로부터 호피(虎皮)를 하사 받았다. 현종 10년(1669) 홍문관 제학을 거쳐 예조 공조 참판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노병으로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저서로 <동명집> 26권이 있다

一六六

金樽에 그득온 술을 술커장 거꾸로고 / 醉後 긴 노래에 즐거오미 그지없다 / 어즈버 夕陽이 蠹타 마라 돌이 조자 오노매.

→ 좋은 술통에 가득한 술을 실컷 기울여 마시고 얼큰히 취한 뒤에 긴 노래 소리를 뽐아대니 즐거움이 그지없구나. 아! 해가 넘어간다고 말하지 말아라. 또 새 달이 떠올라와서 비추며 따라오는구나.

▶ ‘술과 달과 벗과 풍류’, 이것들은 술의 짝으로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어울리는 관습이었다. 술을 중심으로 이 네 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끼야들어야 취흥은 완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취흥이 술의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학 작품 속에서는 주석(酒席)에서의 범절이나 절차 같은 것은 아주 도외시되었던 것 같다. 소설 속에서도 그저 ‘도도한 취흥’ 또는 ‘만취케 마신다’면 그만이었다. 이 작품에도 역시 좋은 친구들에 좋은 술로 의기 투합하여 권커니 작커니 하는 호방한 문객(文客)들의 술자리가 그대로 구김살 없이 그려져 있다.

一六七

君平이 既棄世 하니 世亦棄君平 / 이 醉狂은 上之上이오 時事는 更之更이라 / 다만 淸風明月은 간곳마다 좃친다.

→ 엄군평이 이미 세상을 버렸으니(죽었으니) 세상 또한 군평(나)을 버렸도다. 미치도록 술에 취하여 세상을 잊는 것이 상책 중의 상책이구나. 세상일은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니 다만 맑은 바람과 맑은 달이 가는 곳마다 따라 오는구나.

雪峰

姜栢年字叔久號雪峰 仁組朝登魁重試官至行禮曹判書提學

강백년(姜栢年; 1603~1681)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 호는 설봉(雪峰)이다. 인조 5년(1627)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 정언, 장령을 지내고 1646년 강빈옥사가 일어나자 부교리로서 강빈의 억울함을 상소하였다가 삭직당하였다. 이해에 문과중시에 장원하여 동부승지에 오르고, 이듬해 상소하여 전국에 걸쳐 향교를 부흥케 하였고, 1648년 대사간으로 다시 강빈의 신원을 상소하였다가 청풍군수로 좌천되었다. 효종 4년(1653) 좌승지에 오르고 관찰사등을 거쳐 현종 1년에는 예조참판으로서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뒤 예조판서, 판중추 부사에 이르렀다. 재직중 청백하기로 이름높아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만년에는 고금의 가언(嘉言)과 선저에 관한 것을 수집하여 <대학>의 팔조를 모방하여 <한계만록>을 지었고 약간의 시문이 <설봉집>에 실려있다. 1690년 영의정에 추증되고 청백리로 뽑혔다.

운양의 정퇴서원 청주의 기암서원등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一六八

靑春에 곱던 양조 님으되야 다 늙거다 / 이제 님이 보면 날인줄 아르실가 / 아모나 내形容 그려다가 님의 손더 드리고저.

→ 젊었을 때 아름답던 모양이 임 때문에 다 늙었구나. 지금 임께서 내 모습을 보신다면 그것이 나인 줄 아실까? 아무나 나의 이 초췌한 행색을 그려다가 임에게 드렸으면 한다.

李浣

字淸之 仁組朝武科至 李苗朝官至右相

이완(李浣 ; 1602~1674)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 호는 매죽헌(梅竹軒). 인조 반정 공신의 한 사람인 수일(守一)의 아들이므로 인조 2년(1624) 무과에 급제한 뒤 당시 인조반정

공신의 한 사람이며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서의 추천으로 만포첩사(滿浦僉使)가 되었다. 그후 군수, 부사를 거쳐 1631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도원수 김자점의 별장(別將)으로 출전하여 정방산성(正方山城)을 지켰는데, 적을 동선령(洞仙嶺)으로 유인하여 북병으로 하여금 이를 크게 무찌르게 하여 고을 세웠다. 1639년 최명길의 추천으로 내직인 동부승지가 되었으나 문신들의 반대를 받았다. 1640년 황해병사로 있을 때 청나라의 요청에 의하여 주사대장(舟師大將) 임경업의 부장(副將)으로 명나라의 공격에 나섰으나 이 사실을 명장에게 알려 종일토록 싸웠으나 양쪽에서 사상자가 나지 않았다. 이듬해 8월에 돌아왔으나 청나라의 지탄을 받아 벼슬에 나가지 못하였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한 후 포도대장겸 어영대장이 되어 김자점의 모반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다. 나이 많은 대장 공인후 대신 어영대장으로 임명한 것은 효종의 북벌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효종은 인조 때 양차에 걸친 호란의 후유증을 수습하고 대청 강경책을 표방하여 군비 확충을 추진하였던 바, 이완은 이 북벌계획에 깊이 관여하여 신무기 제조, 성곽의 개수, 신축등으로 전쟁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현종 때에는 군비축소를 단행하여 북벌 의지가 좌절되었으나 그는 한성판윤, 공조, 형조의 판서로 등용되었고 그러면서도 훈련대장은 겸하고 있었다. 현종 7년(1666) 8월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으나 그는 병조와 훈련도감을 겸할 수 없다고 사양하며 나아가지 않았다. 당시 실록을 편찬한 사관(史官)은 이러한 사실을 “명예로운 자리를 사양하기란 옛 사람도 어려운 일인데 무부(武夫)로서 능히 판단하였다. 권력을 탐하고 자격이 없으면서도 좋은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문사(文士)들을 어떻게 보았겠는가?”라고 기록하였다. 그 뒤 두차례나 병조판서에 임명되었지만 끝내 나아가지 않고 훈련 대장으로만 있었다. 1667년 정부 일각에서 강화도의 수군을 폐지하자는 의논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는 실계(失計)라고 하여 끝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1674년 5월에는 우의정에 제수되었으나 그해 6월 군역 변동에 대한 유소(遺疏)를 남기고 죽었다. 숙종 11년(1685) 8월 정익(貞翼)의 시호가 내려졌다.

그는 아버지 수일과 마찬가지로 무장으로서 입신하여 효종의 뜻에 따라 송시열등과 함께 북벌 계획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성품은 최명길의 말과 같이 강직하고 깨끗하며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어 매사에 옳고 그름이 분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뜻이 옳다고 생각할 때에는 국왕 앞에 병부를 풀어놓고 대들었으며 공사가 분명하였다. 반면 매사에 심중한 면도 있었으니 군교나 서리들이 자기에게 논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동료와 같이 와서 의논하게 하여 남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 하였다.

一六九

君山을 削評번들 洞庭湖 | 너를 뺏다 / 桂樹를 버미면들 돌이 더욱 불굴거슬 / 뜻두고 이르지 못하고 늙기 세워 허노라.

→ 군산을 깎아 평평에게 했더라면 동정호가 넓어졌을 것이다. 계수나무를 베어 버렸다면 달이 더욱 밝아질 것이다. 뜻이 있으면서도 이루지 못하고 늙어가니 서럽구나!

▶ 이 시조는 병자호란 뒤의 한창 고조된 배청(排淸) 사상을 작품의 배경으로 하고 있다. 불모로 잡히어 가 이역만리에서 9년간이나 고초를 겪은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여 북벌(北伐)정책을 쓸 때 작가는 훈련대장으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시조의 초장과 중장은 북벌 정책의 당위성을 비유적으로 읊은 내용이고, 종장은 그러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늙어만 가는 것을 못내 서러워하는 내용이다.

松湖

許珽字仲玉號松湖 李苗朝登第官至承旨

허정(許珽 ; 1621~ ?) : 조선 후기의 무시으로 본관은 양천(陽川). 호는 송호(松湖). 참판 계의 아들로 효종 2년(1651)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선천부사를 거쳐 승지와 부윤을 역임하였다. 인평대군의 아들인 복창군과 복평군의 궁녀와 관계되는 옥사가 있었을 때 그 사건의 전말을 청풍부원군 김우명에게 알려주어 김우명으로 하여금 상소를 올려서 복창군과 복평군의 죄를 논핵케한 협객(俠客)이기도 하다. 시조작품이 약간 전해지며 특히 창곡(唱曲)에 뛰어났다.

一七〇

日中三足鳥 | 야 가지 말고 내말 드러 / 너되느 反哺鳥 | 라 鳥中之曾參이로니 / 北堂에 鶴髮雙親을 더디 늙게 하여라.

→ 해 속에 있다는 저 세 발 달린 까마귀야. 해를 따라 가지 말고 내 말을 들어다오. 너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반포조렸다. 그러니 너는 새 중에서 효경(孝經)을 지었다는 공자(孔子)의 제자 증자(曾子)와 같으니라. 우리네 부모님 학처럼 흰머리를 더디 늙게 하여다오.

一七一

西湖 눈진 밤의 들빛지 낮곳튼제 / 鶴髦을 님의초고 江阜로 내려가니 / 蓬海에 羽衣仙人을 마조본 듯 하여라.

→ 서호에 눈이 진 밤의 달빛이 대낮 같을 때 학창의를 여미어 입고 강호로 내려가니 봉해의 우의선인을 마주 본 듯 하여라.

一七二

니영이 다 거두지니 올жат신들 설할소냐 / 불 아니 다인 房에 긴 밤 어이 새오려니 / 아히는 世事를 모르고 이야기야 혼다.

→ 이영이 다 걸히니 울타리인들 성할 것이냐. 불도 펜 방에서 긴 밤을 어찌 새우려 하느냐. 아이는 세상을 모르고 이러쿵 저러쿵 지껄이고 있다.

▶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묻혀 사는 작자, 그는 초중장에서 엿볼 수 있듯이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다. 결국 아무것도 가진게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과장이 아니면 무능력한 선비의 모습같기도 느껴진다. 중장에서 아이는 춥고 배고프니까 이러니 저러니 불평을 해낸다고 하였다. 청빈이니 안빈이니 하는 것을 뜻 있는 어른들의 정신적으로 살아가는 생활태도로서 철없는 아이들은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인간은 하나의 생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지만 빵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식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가치요 제일차적인 의의다.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고인은 말했다. 이 말은 사람은 의식이 족해야 체면도 차리고 도덕도 실천하고 품위도 지키고 인간다운 면목을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민생안정은 경국제민의 근본이다. 결국 주민에게 빵을 주지 못하는 정치는 아무리 아름다운 이념과 사상을 내세워도 무지개처럼 허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조에서 보듯이 옛날의 선비들은 타인들이 자신의 청빈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할 뿐 청빈을 버릴 마음은 없었다. 하지만 부와 이의 추구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의 사회에서는 이 청빈의 윤리는 호소력과 설득력이 약해졌음에 틀림없다.

竹所(죽소) 栗里遺曲(율리유곡)

조선조(朝鮮組) 선조(宣祖)때 김광옥이 지은 14수의 연시조(聯詩調), 전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자연의 풍취에 도취하면서 저물어 가는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였다.

金光煜字晦而號竹所光海時登第官至刑曹判書提學

(김광옥자회이호죽소광해시등제관지형조판서제학)

146.

陶淵明(도연명) 주근 後(후)에 또 淵明(연명)이 나뉘는 말이

밤마을 네 일홈이 마초와 ㄱ틀시고

도라와 守拙田園(수졸전원)이야 괴오내오 다르랴.

- 도연명이 죽은 뒤에 또 도연명이 났단 말인가?

밤마을의 옛 이름이 우연히 맞음과 같도다.

옹졸함을 지켜 전원(농촌)에 돌아와 사는 것이야 그 사람과 내가 다르게 있을소냐!

-도연명- 중국 진(晉)나라 말기에서 송(宋)나라 초기 시대의 시인(詩人), 귀거래사(歸去來辭)를 남기고 벼슬 길에서 물러나고 향리(고향)에서 농경 생활로 여생을 보냈다.

※나뉘는 말이: 났단 말인가의 옛말

※밤마을: 감감한 한밤중의 밤마을과 먹는 밤나무가 있는 마을이라는 서로 뜻이 다른 밤마을이 있었는데 우연히도 이 두 마을이 이름이 같은 밤마을이라는 뜻.

※마초와 ㄱ틀시고: 우연이 같다의 옛말.

※수졸전원(守拙田園): 옹졸함을 지켜 전원(농촌)에 돌아와 삶.

※괴오내오 다르랴: 그 사람과 내가 다르게 있을 쏘냐.

147.

功名(공명)도 니젓노라 富貴(부귀)도 니젓노라

世上(세상) 번우한일 다 주어 니젓노라

내 몸을 내막자 니즈닌 님이 아니니즈랴

- 이 세상에 이름을 휘날리는 공명심도 잊었도다 세상에 마음이 시달려 괴로워하고 근심걱정 하는 것들까지도 모두 다 잊었노라. 내 몸까지도 내가 잊었으니 남이야 나를 아니 잊을 수가 있겠느냐.

※니젓노라: 잊었노라의 옛말.

※번우(煩憂): 괴로움과 근심 걱정.

해설: 속세를 잊고 산수 자연 속에서 자연의 섭리대로 무위(無爲)의 경지와 탈속한 은사의 심경을 노래했다.

은사- 벼슬않고 숨은 선비

148.

뒷집의 술밭을 꾸니 거친 보리 말뚝춘다

즈는 것 마고찌허 쥐비저 파아내니

여러날 주렷든 입이니 드나쁘나 어이리

-뒷집에 술쌀을 꾸니 거친 보리 말 못 찬다. 즈는 것 마구 찢어 쥐밧어 괴어내니 여러날 주렷든 입이니 다나 쓰나 어이리.

149.

江山閑雅(강산한아)흔 風景(풍경) 다 주어 맛다이셔
내 혼자 님자여니 뉘라셔 드톨소니
남이야 꿈꾸지너긴들 눈화볼줄 이시랴.

-강산의 한가한 풍경 다 주워 말아 있어 나 혼자 임자니 뉘라셔 다톨소냐 남이야 심술궂게 여긴들 나뉘 볼 줄 있으랴.

150.

덜가마 조히 싣고 바회 아래 심물 기려
팍죽 돌게 뿌고 저리지이
쓰어 내니 世上(세상)에 이 두마시야 남이 알가 호노라.

-덜가마를 깨끗이 씻어 바위 아래에서 샘물을 길어다가 팍죽을 달게 뿌고 절인 김치를 꺼내어 먹으니 세상에 이 팍죽과 절이 김치의 맛이야말로 남이 알까 두렵다.

※덜가마: 흙으로 구워 만든 가마솥.

※저리지: 절인 김치

※이쓰어: 이끌어

해설- 대단치 않은 음식 팍죽과 절인 김치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며 남이 알까봐 걱정하고 있다. 전원생활의 즐거운 식생활과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생활을 노래했다.

151.

어와 저 白鷗(백구)야 무슨 슈고 호느슨다
굴습호로 바자니며 고기 엇기호느괴야
날 궂치 군마음 업시 잠만 들면 엇더라.

-어와 저 백구야 무슨 수고하느냐. 갈 숲으로 바자니며 고기 엇기 하는구나.
나같이 군 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찌리.

※바자이며: 부질없이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152.

茅簷(모첨) 기나긴 희울일 아조 업서
蒲團(포단)에 낮잠드려 夕陽(석양)에 지자끼니
門(문)밖과 뉘옴 하며 낙시 가자 호느니.

-모첨 기나긴 해에 할 일이 아주 없어 포단에 낮잠 들어 석양이 지고 난 뒤 깨니 문 밖에 그 누가 함께 낙시 가자하나니

※모침: 초가지붕의 처마

※포단: 부들로 둥글게 틀어만든 깔고 앉는 방식

153.

三公(삼공)이 貴(귀)타흔들 이 江山(강산)과 밧골소나

片舟(편주)에 둘을 싣고 낙대를 훑더질제

이 몸이 이 淸興(청흥)가지고 萬戶侯(만호후)인들 부르랴.

-삼공(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깥소나 편주에 달을 싣고 낚시대
를 훑던질 때 이 몸이 청흥 가지고 만호후(일만호가 사는 영지를 가진 제후)인들 부러우랴.

154.

秋江(추강) 볼근 둘에 一葉舟(일엽주) 혼자 저어

낙대를 썰쳐드니 자는 白鷗(백구) 다 놀란다

어디서 一聲漁笛(일성어적)은 조차 興(흥)을 돕느니

-추강 밝은 달에 일엽주 혼자 저어 낚시 대를 썰쳐 드니 잠든 백구 다 날아가는 구나 어디
서 일성어적도 흥을 돕느니.

155.

헛글고 싣근 文書(문서) 다 주어 후리치고

匹馬秋風(필마추풍)에 채를 쳐 도라오니

아프리 밋인 새 노히다 이대도록 식원하랴.

-흠어져서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문서를 다 모아서 뿌리쳐 내던지고, 한 필의 말을 타고
채찍하여 추풍령을 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니 아무리 초롱에 갇힌 새가 풀려났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시원할 수가 있으랴.

※헛글고: 흠어져서의 옛말.

※싣근 文書(문서): 어수선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문서

※후리치고: 뿌리쳐 내던지고

※채: 채 회초리. 말을 내리치는 나무토막

※밋인 새: 매여있는 새

※노히다: 풀려나다의 옛말

※추풍(秋風): 추풍령이란 뜻. 충북 영동 지방에서 황간으로 넘어가는 저를 말함.

156.

대막대 너를 보니 有信(유신)하고 반갑괴야

나니 아히적의 너를 타고 돈니더니

이제란 窓(창)뒤헤 섰다가 날뒤세고 돈너랴.

-대막대야 너를 보니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반갑기도 하다. 내가 어린 아이 적에는 너를 즐
겨 타고 다녔느니라. 그 뒤에 내가 늙어들랑 창 뒤에 서 있다가 나를 세우고 다녀다오
(내가 늙거든 지팡이가 되어 나를 뒤에 세우고 너는 앞서가거라.)

※나니: 냇가의 옛말

※아히: 어린이

157.

世上(세상)사람들이 다 쓰러 어리더라
죽을줄 알면서 놀줄란 모로더라
우리는 그런줄 알모로 長日醉로 노노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구나 죽을 줄 알면서 놀 줄은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런 줄 알므로 장일취로 노노라.

158.

사람이 주근 後(후)에 다시 사니 보왓는다
왔노라 하니 어고 도라와 놀보니 어다
우리는 그런줄 알모로 사라신제 노노라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산 사람 보았는가? 왔노라 한 사람 없고 돌아와 날 본 사람도 없다 우리는 그런 줄 알므로 살아있을 때 노노라.

159.

黃河水(황하수) 뭍단 말가 聖人(성인)이 나서도다
草野群賢(초야군현)이 다 니러 나닷말가
오즈버 江山風月(강산풍월)을 누구를 주고 가는가

-황하수 맑다더니 성인이 나시도다 초야군현이 다 일어났다 말인가 어와 강산풍월을 누구를 주고 가는가.

160.

세버들 柯枝(가지) 짓거 낙근 고기 썬여들고
酒家(주가)를 츠즈려 斷橋(단교)로 건너가니
원골에 杏花(행화)저 빠히나 갈 길 몰라 호노라.

-실버들 가지를 꺾어서 낙근 고기를 썰어 들고 술집을 찾아가련다. 마음먹고 끊어진 다리를 건너가니 그곳에는 살구꽃이 떨어져 휘날리고 있어, 술집으로 갈까나? 살구꽃 휘날리는 곳으로 갈까나?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도다.

※날리니: 휘날리니

161.

東風(동풍)이 건듯 부러 積雪(적설)을 다노기니
四面靑山(사면청산)이 네 얼굴 나노매라
귀밧치 희무근 서리논 녹을 줄을 모른다.

-동녘 바람이 잠시 불어 쌓인 눈을 다 녹이니 사방의 푸른 산이 옛 모습을 들어내는 구나 그런데 귀밧치 해묵은 흰머리 털은 녹을 줄을 모르는구나.

※건듯 부러: 잠시 잠깐 불어

※사면청산(四面靑山): 동서남북의 사방에 있는 푸른 산

※나노매라: 나타난다의 옛말

162.

崔行首(최행수) 쪽달힘 ㅎ새 趙同甲(조동갑) 꽃달힘 ㅎ새
돌점 계점 오려 點心(점심) 날 시기소
每日(매일)에 이령성 굴면 뜨슴 시름이시라.

-최행수여 쑥 끓여 쑥달임 하세. 조동갑네야 꽃지저 꽃달임 하세나. 닭점도 하고 개점도 하세나 올벼쌀로 점심 짓는 일은 나를 시켜 주시게나. 날마다 오늘 이 모양으로 지낸다면야 벼슬하는 일은 무엇이 부러울 게 있겠는가?

※행수(行首): 한 무리의 우두머리. 두목

※달힘: 달임의 옛말. 끓인다거나 지저서 먹고 마시며 노는 놀이

※오려: 올벼. 일찍 먹는 벼의 옛말

※이령성: 이런 모양 이런 일의 옛말.

洛西(낙서)

長晩字好古號洛西(장만자호고호락서)

仁組祖官至二相兵判都元帥玉城府院君(인조조관지이상병판도원수옥성부원군)

163.

風波(풍파)에 놀란 沙工(사공) 비 프라 물을 사니
九折羊腸(구절양장)이 물도곤 어려왜라
이 後(후)란 비도 물도 말고 밭 갈기만 하리라.

-협상국은 바람과 물결에 시달리다 못한 뱃사공은 배를 팔아서 말을 사니 굵이굵이 뒤틀어진 양의 창자처럼, 말을 물고 다니기란 더욱 힘들고 어렵구나. 이후에는 뱃사공이고 말 물기고 간에 다 그만두고 밭 갈기(농사짓기)만 하련다.

※九折羊腸(구절양장): 꾸불꾸불 뒤틀어진 양의 창자처럼 험준한 길. 또한 신라, 고려 이전 있었던 수레의 이름이기도 하다.

※물도곤: 물기의 옛말. 말을 물기란 뜻

해설- 작자가 문관에서 무관으로 벼슬을 옮겨 공을 세웠으나 당쟁의 여파로 유형에 처해졌다. 그러니 벼슬을 떠나 전원에서 농사나 짓고 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뜻이다. 벼슬살이의 어려움과 당쟁의 폐단을 간접적으로 풍자한 것이다.

湖洲(호주)

蔡裕後字伯昌號湖洲(채유후자백창호호주)

仁祖朝登第選湖堂典文衡官至吏曹判書(인조조등제선호당전문형관지이조판서)

164.

드나 브나 니 濁酒(탁주) 죠코 대테 메은 질병드리 더욱 죠희

어른자 박구기를 등지등등 띄여두고
아히야 저리 짐칠만정 업다 말고 내여라.

-달거나 쓰거나 입쌀로 만든 술이 좋고, 참대로 테를 두른 질병들이 탁주를 담기에는 더욱
좋도다. 얼씨구, 표주박으로 만든 술구기를 술통에 등등 띄어놓고 마시는데 아이야 절인 김
치라도 좋으니 안주 없다 하지 말고 내어 오너라

※濁酒(탁주): 입쌀로 만든 막걸리
※대테: 대나무로 엮은 테
※질병: 지질 그릇병
※어른자: 얼씨구, 지화자 같은 감탄사.
※박구기: 표주박으로 만든 구기. ‘구기’는 물이나 술을 뜨는 기구
※저리 짐칠: 절인 김치

해설- 입쌀로 만든 막걸리, 대테메운 질병, 박구기, 절인 김치 등이 토속적이고 소박하여 서
민적인 냄새를 물씬 풍김과 동시에 술 마시는 여유와 호방함이 좋다.

陽波(양파)

鄭太和字囿春號陽波(정태화자유춘호양파)
仁祖朝登第官至領相諡翼憲(인조조등제관지령상익익헌)
165.
술을 醉(취)케먹고 두렛이 안자시니
億萬(억만)시름이 가노라 下直(하직)한다
아히야 蠶(잔) ㄴ득 부어라 시름 餞送(전송)하리라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여럿이 둥글게 앉아 있으니 억만가지의 근심이 다 하직을 고하는구
나 아이야 내 잔에 술을 가득 부어라 떠나가는 근심 걱정을 전송하리라

※두렛이 안자시니: 자세를 바로자고 똑바로 앉았으니의 옛말.

해설-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잠시나마 술로써 풀어 보려는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시름
을 인격화해서 친근한 벗과의 이별쯤으로 생각하는 표현이 멋있다.

東溟(동명)

鄭斗卿字君平號東溟(정두경자군평호동명)
仁祖朝登魁科官至禮曹衆判參學文章奇拔(인조조등괴과관지예조참판제학문장기발)
166.
金樽(금준)에 ㄴ득한 술을 슬커장 거후로고
醉(취)한 後(후) 긴 노래에 즐거오미 그지업다

어즈버 夕陽(석양)이 盡(진)타마라 돌이 조차 오노매

-좋은 술통에 가득한 술을 실컷 기울여 마시고 얼큰히 취한 뒤에 긴 노래 소리를 뿜아대니
즐거움이 그지없구나 아! 해가 넘어간다고 말하지 말아라 또 새 달이 떠올라 와서 비추어
주는 구나.

※금준(金樽): 금 술통, 화려한 술통

※슬커장: 실컷의 옛말

※거후로고: 기울이고의 옛말

※盡(진)타마라: 다 지난다 하지마라

※오노매: ‘~노매’는 ‘~노매라’의 축약 감탄 종지로, 오는구나의 옛말

해설- 작가가 홍만중(洪萬宗), 김득신(金得臣), 임유후(任有後)등의 글벗들과 어울려 술을 마
시며 읊은 것이라고 한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술로 의기투합하여 권커니 작커니하는 호방
한 문객(文客)들의 술자리가 구김살 없이 잘 그려져 있어 풍류가 넘치고 있다.

167.

君平(군평)이 既棄世(기기세)하니 世亦棄君平(세역기군평)이
醉狂(취광)은 上之上(상지상)이오 時事(시사)는 更紙更(갱지갱)이라
다만 지 淸風明月(청풍명월)은 간곳마다 좇춘다

-도사 엄군평(嚴君平)이 이미 세상을 버렸으니 세상 또한 도사(道士) 엄군평을 버렸도다. 미
치도록 술에 취하는 것이 상책 중에 상책이다. 세상일은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니 다만 맑
은 바람과 밝은 달이 간 곳 마다 따라오는구나.

※군평(君平): 도사(道士) 엄군평(嚴君平)을 말함. 즉, 여느 사람을 지칭함.

※기기세(既棄世): 이미 세상을 버렸다.

※취광(醉狂): 미치도록 술에 취함

※상지상(上之上): 상책 중의 상책. 즉, 제일 좋은 일

※갱지갱(更紙更): 변하고 변한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다.

雪峯(설봉)

姜栢年字叔久號雪峯(강백년자수구호설봉)

仁組朝登第魁重試官至行禮曹判書提學(인조조등제괴중시관지행예조판서제학)

168.

靑春(청춘)에 곱던 양주 넘으되야 다 늙거다
이제 님이 보면 날인줄 아르실가
아모니 내 形容(형용) 그려다가 님의 손더 드리고져.

-젊었을 때 아름답던 모양이 임 때문에 다 늙었다. 지금 임께서 내 모습을 보신다면 그것이
나 인줄 아실까? 아무나 나의 이 초췌한 행색을 그려다가 임에게 드렸으면 한다.

※양자: 모습

※님으리야: 님으로 말미암아.

※님의 손디: 님에게

해설- 늙은 신하의 연주지심(戀主之心)을 노래한 것이다. 임금의 곁을 떠난 지 이미 오래이고 나이 또한 늙은 지금 임금은 나를 잊었는지 모르지만 임금을 그리는 충성심은 변화 없음을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다.

李滄(이완)

字淸之 仁祖朝武科至孝 朝官至右相
(자청지) (인조조무과지효묘조관지우상)

169.

君山(군산)을 削平(삭평)턴들 洞庭湖 | (동정호) 너를랏다
桂樹(계수)를 버히던들 돌이 더욱 불글거슬
뜻 두고 이로지못호고 늙기 설워호노라.

-군산을 깎아 평평하게 했더라면 동정호가 넓어졌을 것이다. 계수나무를 베어 버렸다면 달이 더욱 밝아질 것이다. 뜻이 있으면서도 이루지 못하고 늙어가니 서럽구나!

※군산(君山): 동정호 안에 있는 산

※삭평(削平): 깎아 평평하게 하는 것

※동정호(洞庭湖): 중국 호남성 부근에 있는 호수

※너를랏다: 넓을 것이로다

※버히던들: 베었던들. 기본형 '버히다'

해설- 작자는 효종의 뜻에 따라 북벌 계획을 세워 준비를 강화했으나 효종이 승하하면서 그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 시조는 좌절의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초,중장은 북벌 계획의 당위성을 비유한 것이고, 종장은 효종의 평생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늙게됨을 탄식한 것이다.

松湖(송호)

許珽字仲玉號松湖 孝 組登第官至承旨(허정자중옥호송호 효묘조등제관지승지)

170.

日中三足鳥 | (일중삼족오)야 가지 말고 내말 드러
너희는 反哺鳥 | (반포조)라 鳥中之曾參(조중지증참)이로니
北堂(북당)에 鶴髮雙親(학발쌍친)을 더디 늙게호여라

-해 속에 있다는 저 세발 달린 까마귀야. 해를 따라 가지 말고 내말을 들어다오 너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반포조였다. 그러니 너는 새 중에서 孝經(효경)을 지었다는 孔子(공자)의 제자 曾子(증자)와 같으니라. 우리네 부모님 학처럼 흰머리를 더디 늙게 하여다오.

※일중삼족오(日中三足鳥): 해 속에 있는 세발달린 까마귀

※반포조(反哺鳥):반포(反哺란 어린 까마귀 새끼가 자란 뒤에 어미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것. 그래서 나를 낳아 주고 길러 준 어미 까마귀에게 은혜를 보답한다는 것)를 할줄 아는 새라는 뜻으로 까마귀를 일컫는 말.

※오중지증참(鳥中之曾參): 새의 증자(曾子是 중국 사람으로 孔子의 제자이다. 曾子가 孝經이라는 책을 지어 사람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을 明示(명시)하였으니 까마귀 또한 曾子와 같다는 것.

※학발쌍친(鶴髮雙親): 학처럼 머리가 하얗게 늙으신 부모님을 말함.

171.

西湖(서호) 눈진 밤의 돌빋치 낮췄튼제

鶴擎(학창)을 님의 촛고 江阜(강고)로 내려가니

蓬海(봉해)에 우의선인을 마주본 듯 하여라

-서호 눈발 날리는 밤에 달빛이 낮같은데 학창을 님이 입고 강 언덕으로 나아가니 봉해의 선인을 마주 본 듯 하더라

※학창(鶴擎): 학창의- 옷옷의 한가지

172.

니영이 다 거두치니 울갯신들 설홀소나

불 아니 다힌 房(방)에 긴 밤 어이 새오려니

아흐 | 는 世事(세사)를 모로고 이야기야 한다.

-이영이 다 걷히니 울타리인들 성할 것 이냐 불도 아니 뎌 방에서 긴 밤을 어찌 세우려하느냐 아이는 세상을 모르고 이러쿵저러쿵 지껄이고 있다.

※니영: 이영, 짚 같은 것으로 지붕을 덮는 것

※거두치니: 걷어치우니

※울갯: 울타리. 울과 갯의 복합어

※다힌: 뎌. 기본형은 '다히다'

※이야지야: 이렇거니 저렇거니 불평하는 모양

해설- 자연속에 묻혀 처연한 생활을 하는 작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낙향한 선비의 생활상이 눈에 보인다.

김광옥-본관 안동. 자 회이(晦而). 호 죽소(竹所). 시호 문정(文貞). 형조참판 상준(尙儔)의 아들. 1606년(선조 39)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며 이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 등용되었다. 예문관검열을 거쳐, 1611년(광해군 3) 정언(正言)이 되어 이언적(李彦迪) · 이황(李滉)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반대하는 정인홍(鄭仁弘)을 탄핵하였다. 1615년에 폐모논의를 위한 정청(庭請)에 참여하지 않았다하여 삭직되자 고향에 은거하였다. 인조반정 후 복관되어 고원(高原)군수 · 홍주(洪州)목사 등을 지냈다.

1649년(효종 즉위년) 형조판서 · 한성부판윤 등을 거쳐 이듬해 경기감사로 있으면서 수원부사 변사기(邊士紀)의 역모사건을 밝혀냈다. 그 뒤 개성유수에 보임되고, 돈령부지사(知事)에

올랐다. 1654년 동지사(冬至使)로 베이징[北京]에 다녀왔으며, 형조판서 · 우참찬(右參贊)을 거쳐서 좌참찬에 이르렀다. 문집에 《죽소집》이 있다.

장만-본관 인동(仁同). 자 호고(好古). 호 낙서(洛西). 시호 충정(忠定). 1589년(선조 22) 생원 · 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591년에는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 · 승문원의 벼슬을 거쳐 검열 · 전생시(典牲寺) 주부를 역임하였다. 이어 형조 · 예조의 좌랑 · 지평이 되었으며, 1599년 봉산(鳳山)군수가 되었다. 1601년 도승지에 오르고 이듬해 왕후의 고명주청(誥命奏請)부사로, 이어 세자책봉 주청부사로 두 차례 명나라에 다녀왔다.

1607년 함경도관찰사로 누루하치[奴兒哈赤]의 침입을 경고하여 그 방어책을 세우도록 상소하였고, 1610년(광해군 2) 다시 함경도관찰사가 되자 방비대책의 시급성을 역설, 중추부동지사(中樞府同知事)로 호지(胡地)의 지도를 그려 바쳤다. 그 후 형조판서, 병조판서로 대북(大北)의 난정(亂政)을 소진(疎陣)하였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자, 칭병(稱病)하고 고향에 은거하였다.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다시 등용되어 팔도도원수(八道都元帥)로서 원수부(元帥府)를 평양(平壤)에 두고 있다가, 이듬해 이괄(李适)의 난을 진압하여 진무(振武)공신으로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에 오르고 옥성(玉城)부원군에 봉해졌다. 우찬성을 거쳐 다시 병조판서가 되었으나 1627년 정묘호란 때 적을 막지 못한 죄로 관작을 삭탈당하고 부여(扶餘)에 유배되었다가 전공(前功)으로 용서받고, 복관되었다. 문무를 겸비하고 재략이 뛰어났다. 영의정에 추증되고, 통진(通津)의 향사(鄉祠)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낙서집》이 있다.

채유후-본관 평강(平康). 자 백창(伯昌). 호 호주(湖洲). 시호 문혜(文惠). 17세에 생원(生員), 1623년(인조 1) 개시문과(改試文科)에 장원,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고, 1636년 병자호란 때 집의(執義)로서 왕을 호종, 김류(金) 등의 강화 천도 주장을 반대, 주화론(主和論) 편에 섰다.

1641년 광해군이 제주(濟州)에서 죽자 호상을 맡아보았다. 효종이 즉위한 뒤 대제학(大提學)으로서 《인조실록》 《선조개수실록(宣祖改修實錄)》 편찬에 참여, 좌부빈객(左副賓客)을 거쳐 1660년(현종 1)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냈다. 작품으로는 시조 2수가 있고, 문집 《호주집》이 전한다.

정태화-본관 동래(東萊). 자 유춘(春). 호 양파(陽坡). 초시 익헌(翼憲). 개시 충익(忠翼). 형조판서 광성(廣城)의 아들이다. 1628년(인조 6) 별시문과(別試文科) 병과에 급제한 뒤 정언(正言) · 이조좌랑 · 사간(司諫) 등을 지냈다. 1635년 원수부(元帥府)가 창설되자 원수부의 종사관(從事官)이 되고, 1636년 병자호란 때 도원수가 도주하자 패잔병을 모아 현관(縣館)에 의지하여 시석(矢石)으로 항전하여 수많은 적을 사살한 공으로 집의(執義)가 되었다. 1637년 소현세자(昭顯世子)를 선양[瀋陽]에 배종(陪從)하고 돌아와 호령안찰사(湖嶺按察使)로 있을 때 명나라와의 밀약이 청나라에 탄로나자, 조정에서는 그를 봉황성(鳳凰城)에 보내 청나라의 협박을 막았다.

1640년 한성부우윤 · 평안도관찰사 · 도승지 등을 거쳐 1644년 이조참판 겸 접반사(接伴使)가 되고, 1645년 호조판서 때 봉림대군(鳳林大君)의 세자책봉을 반대했다. 1646년 공조판서가 되고, 1648년 형조판서로 전임된 뒤 이듬해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 때 사은사(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영의정이 되었다. 1650년(효종 1)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가 되어 좌의정이 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이듬해 재차 영의정이 되었다.

1658년 병으로 물러났다가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에 재기용, 1659년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그 해 효종이 죽자 원상(院相)이 되어 국정을 처리하고, 송시열(宋時烈)의 기년설(基年說)을

지지, 시행하게 하고 1662년(현종 3) 진하 겸 진주사(進賀兼陳奏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6차의 영의정을 지냈으며, 37번의 청원 끝에 사직하였다. 1671년 기로소에 들어갔는데, 병으로 조정에 나갈 수 없으므로 현종은 가마를 타고 들어오도록 하였다. 시조 1수가 전한다. 현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고, 문집에 《양파유고》 저서에 《양파연기(陽坡年紀)》가 있다.

정두경-본관 온양(溫陽). 자 군평(君平). 호 동명(東溟). 이항복(李恒福)의 문인. 1629년(인조 7) 별시문과에 장원하여 부수찬 · 정언 · 직강(直講) 등을 지내고, 1636년 병자호란 때 ‘어적십난(禦敵十難)’을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650년(효종 1) 교리로서 풍시(諷詩) 20편을 찬진(撰進)하여 왕으로부터 호피(虎皮)를 하사받았다. 1669년(현종 10) 용문관제학에서 예조참판 · 공조참판 겸 승문원제조(提調) 등에 임명되었으나 노환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시문과 서예에 뛰어났고 대제학에 추증되었다. 문집에 《동명집(東溟集)》이 있다.

강백년-본관 진주. 자 숙구(叔久). 호 설봉(雪峰) · 한계(閑溪) · 청월헌(聽月軒). 시호 문정(文貞). 1627년(인조 5) 정시문과에 급제하였고, 1646년 부교리로 있을 때 강빈옥사(姜嬪獄事)가 일어나자 강빈의 억울함을 상소했다가 한때 삭직되었다. 이해 문과증시에 장원급제하여 동부승지(同副承旨)에 오르고 이듬해 상소하여 전국의 향교(鄉校)를 재흥하게 하였으며, 1648년 대사간으로서 다시 강빈의 신원(伸冤)을 상소하였다가 청풍군수(淸風郡守)로 좌천되었다. 1660년(현종 1) 예조참판으로서 동지부사(冬至副使)가 되어 청(淸)나라에 다녀왔다. 문명(文名)이 높았으며 기로소에 들어갔다. 1690년(숙종 16)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후에 청백리(淸白吏)로 낙선되었다. 문집에 《설봉집(雪峰集)》 《한계만록(閑溪錄)》 등이 있다.

이완-본관 덕수(德水). 자 열보(悅甫). 20세에 숙부 이순신(李舜臣)을 도와 임진왜란의 서전에서 공을 세우고, 노량(露梁)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하자 그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독전(督戰)하여 전승(戰勝)을 거두었다. 1599년(선조 32) 무과에 급제, 인조 초에 수사(水使)가 되어 이천(利川)에서 이괄(李适)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랐다.

의주(義州)부윤 때 명나라 모문룡(毛文龍)의 군사들이 촌가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자 분함을 참지 못하여 곤봉으로 때린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강등되었다. 정묘호란 때에 적군이 의주를 포위하자 역전분투 끝에 종제(從弟) 개(蓋)와 함께 순국하였다.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충의정문(忠義旌門)을 세워 기렸다.